

UEFA 반발·비리에 막내린 '블래터 천하'

사커 토크 | 블래터 FIFA 회장 자진 사퇴 배경

회장선거 후에도 반 블래터 진영 공세
FIFA 2인자 발케 총장 비리수사 부담
내년 새 회장 선출...새 바람 불지 관심

제프 블래터(78·스위스·사진)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돌연 사퇴했다. 블래터 회장은 3일(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 FIFA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이 결정됐지만 모두의 지지를 받는 데 실패했다. FIFA 재건을 위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블래터 회장은 지난달 30일 FIFA 총회에서 실시된 회장 선거에서 경쟁상대 알리 빈 알 후세인 요르단 왕자의 중도 포기로 재선임을 받았다. 그러나 유럽축구연맹(UEFA) 등 '반 블래터' 진영의 거센 반발과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FIFA 임원들에 대한 비리혐의 수사에 부담을 느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1998년

부터 이어온 블래터 회장의 장기 집권은 막을 내리게 됐다.

●돌연 사퇴의 배경은?

블래터 회장이 스스로 자리를 내놓기로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지난주 FIFA 총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나를 공격한 이들을 용서하겠지만, (최근 일어난 일들을) 잊지는 않겠다. FIFA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락 연설을 했다. 비리 연루설에 시달리고 있지만, 자리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블래터 회장은 4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회장 선거가 끝난 뒤로도 미셸 플라티니(60·프랑스) UEFA 회장 등 반대진영은 블래터를 향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UEFA는 "2018러시아월드컵 예선에는 참여하지만, FIFA 집행위원회 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일각에선 UEFA가 FIFA를 탈퇴하

고, 그에 대항할 새 기구를 창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반 블래터' 운동에 부담을 느낀 듯하다. 최측근의 비리 연루설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FIFA의 '2인자' 제를 발케(55·프랑스) 사무총장은 2010남아공월드컵 유치 과정에서 약 1000만달러(약 111억원)의 뇌물을 수수해 일부 집행위원들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FIFA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미국 검찰은 블래터 회장의 승인을 받아 발케 총장이 돈을 건넸을 것으로 보고 있다. FIFA는 이를 부인했지만, 만약 발케 총장이 수사를 받게 되면 블래터 회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때문에 블래터 회장이 큰 부담을 느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FIFA에 새 바람 불까?

블래터 회장이 자리를 내놓으면서 FIFA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FIFA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못지않은 위상을 자랑하는 국제스포츠단체다. 단일종목으로는 세계 최고의 이벤트인 월드컵을 개최하고 있다. 그 덕에 다양한

스폰서 유치와 TV 중계권 등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 그렇다보니 검은 돈 거래가 적지 않다는 루머가 파다했다. 'FIFA 집행위원회'가 되면 부와 명예를 동시에 거머쥌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도는 근거다.

FIFA 집행위원들이 비리에 연루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과거에도 월드컵 유치 등과 관련해 로비를 받아 당국의 조사를 받은 집행위원들이 있었다. 2022년 카타르월드컵 유치 과정에서 로비 정황이 드러나 당시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으로 FIFA 집행위원회에서 활동한 모하메드 빈 함맘(66·카타르) 회장이 물러나기도 했다.

차기 회장 선거는 FIFA 정관에 따라 이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3월 이전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새 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FIFA의 방향성이 결정된다. 블래터 회장 측근이 당선되면 변화는 쉽지 않다. '반 블래터' 진영에서 집권하면 '마피아'로도 불린 FIFA의 민낯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포항 외국인선수 티아고가 지난달 25일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열린 울산과의 K리그 클래식(1부리그) 1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추가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티아고는 올 시즌 새로 K리그를 밝은 용병 중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포항 티아고 4골·2도움 외국인 새얼굴 중 '으뜸'

제주 까랑가·성남 루카스 등 5명 무득점

'용병 농사가 한 시즌을 좌우한다'는 말처럼 외국인선수가 팀 전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래서 각 팀을 용병 영입에 거액을 투자한다. 축구는 국내 4대 프로스포츠 중 가장 이른 1983년부터 외국인선수 제도를 도입했다. 2015시즌 K리그 클래식(1부리그) 12개 팀에 등록된 외국인선수는 총 32명이고, 그 가운데 올해 신입 용병은 14명이다. 시즌 초 영입 당시부터 13라운드까지 구단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외국인선수로는 누가 있을까.

공격수 중에선 포항 스틸러스 티아고(22)가 그나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9경기에 출전해 4골·2도움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제주 유나이티드 로페즈(25)가 12경기에서 2골·4도움을 올렸다. 공격수 중 단 1골에 그친 선수로는 전남 드래곤즈 오르사(23), 광주FC 질베르토(28)가 있다. 용병으로 부르기에 낮 뜨거운 무득점 5인방은 제주 까랑가(24), 성남FC 루카스(21), 포항 라자르(29), 대전 시티즌 하칼딩요와 사샤(27)다. 모두 출전 경기수가 10게임 이하인 탓도 있었지만, 정상적 컨디션을 만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 보인다. 미드필더인 수원삼성 레오(26), 성남 조르징요(24), 포항 모리츠(29) 역시 잦은 부상 등으로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 꾸준하게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리그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영입한 외국인선수들이 제 몫을 못 해주면서 겪는 팀의 고전은 한 시즌을 풀어나가는 데 큰 골칫거리다. 특히 외국인선수 없이 지난 2시즌을 버텼던 포항이 올해 정상을 노리기 위해 데려온 용병 3총사의 경우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아직은 아쉬움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 시즌 K리그에 데뷔한 14명 중 유일하게 13경기에 모두 출전하며 눈길을 사로잡은 선수가 있다. 인천 유나이티드 수비수 요니치(24)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울산현대, 이근호와 함께하는 이벤트 마련

울산현대는 7일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 15라운드 경기에서 이근호(엘 자이시)와 함께하는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3일 밝혔다. 엘 자이시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이근호는 휴식기를 맞아 친정팀 울산을 찾는다.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울산문수경기장 스카이박스에서 이근호와 함께 경기를 관람할 10명을 선발하며, 경기 시작 2시간 전에는 사인회와 포토타임도 갖는다.

상주상무, K리그 최초 밀리터리 유니폼 착용



상주상무는 3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 13라운드 경남FC와의 홈경기에서 K리그 최초로 밀리터리 유니폼(사진)을 착용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제작한 이 유니폼은 군인선수들의 군인정신을 표현하고 호국 영웅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기 위해 제작됐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을 지낸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프 블래터 FIFA 회장의 사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명예회장은 차기 FIFA 회장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김진철 기자 kwangshin00@donga.com

정몽준 명예회장 "FIFA 차기 회장 출마? 신중하게 생각"

반 블래터 측 후보들 대거 출마 전망

제프 블래터(79·스위스)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3일(한국시간) 사임했다. 1998년 FIFA 회장이 된 그는 지난달 30일 FIFA 총회에서 5선에 성공한지 4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미셸 플라티니(60·프랑스)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은 영국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블래터 회장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플라티니는 1998년 블래터가 회장 자리에 오르는 데 도움을 주는 등 대표적 지지 세력이었지만, 2011년 이후 반기를 들었다. 대표적인 반(反) 블래터 진영 인사인

그렉 다이코(65) 잉글랜드축구협회장 역시 "세계축구에 좋은 소식"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FIFA 부회장을 지낸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도 이날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17년 동안 FIFA에서 일한 나도 책임을 통감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 실추된 FIFA를 바로 세울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블래터의 사임으로 차기 회장에 대해 나에게도 물어본다. 참여할지 신중하게 생각해보겠다. 국제축구계의 여러 인사들을 만날 기회가 되면 경청한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 일간 가디언은 블래터의 뒤를 이을 회장 후보를 꼽아 눈길을 끌었다. 가디언은 최근 FIFA 회장 선거에 출마한 알리 빈 알 후세인(40) 요르단 왕자, 포르투갈 축구 레전드 루이스 피구(43), 플라티니, 미카엘 판 프라호(68) 네덜란드축구협회장 등이 선거에 재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모두 반 블래터 진영이다. 이사 하이투(69·카메룬) 아프리카축구연맹 회장, FIFA 국제국장을 지낸 제롬 샤파뉴(57·프랑스), 세이크 아흐메드 알 파하드 알 사바(52·쿠웨이트) 아시아올림픽평의회회장 등도 출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하이투 회장, 알 사바 회장은 친 블래터 인사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블래터도 수사 대상" 美·英 언론 "비리수사 계속된다"

제프 블래터(79·스위스·사진) 회장의 자진 사퇴가 국제축구연맹(FIFA)의 비리를 수사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27일(한국시간) 미국 검찰은 스위스 검찰과의 공조로 제프리 웹 부회장, 에우헤니오 피게레 부회장, 제 워너 전 부회장 등 FIFA 고위직 7명을 뇌물 수수와 공갈·협박, 온라인 금융사기, 탈세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블래터 회장을 당장 기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종 비리들은 물론 월드컵 개최지 선정 등을 둘러싼 FIFA 인사들의 비리의 중심에 블래터 회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해왔다. 결국 일주일 만에 상황은 뒤집혔다.

블래터 회장이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임을 직접 발표한 직후 영국 일간지 가디언, 미국 LA 타임즈 등은 이번 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일제히 "블래터 회장도 FBI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블래터 회장의 비리수사는 계속된다"고 보도했다. 또 블래터 회장은 FBI뿐 아니라 FIFA 고위 간부들을 기소한 미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백솔미 기자

김학범 감독 "황의조, 머지않아 태극마크 달 것"

K리그 4골·ACL 3골...최고의 활약 "가능성 무궁무진...대표팀 기회 올 것"

성남FC 공격수 황의조(23)의 주가는 최근 들어 폭등하고 있다. 지난 시즌 28경기에서 4골을 기록했던 그가 김학범(55) 감독을 만나면서 무서운 속도로 기량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황의조는 올 시즌 K리그 클래식(1부리그) 10경기에서 4골을 터뜨렸다. 여기에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3골을 더하면 올 시즌 총 7골을 기록 중이다. 시즌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지

난해 성적을 훌쩍 뛰어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황의조는 특히 5월 31일 K리그 클래식 선두 전북현대와의 13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막바지 2골을 몰아치며 성남에 2-1 승리를 안겼다. '극강' 전북에 올 시즌 2패째(10승1무)를 안기는 원맨쇼였다. 그 덕에 황의조는 K리그 클래식 13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비록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G조 첫 경기를 앞둔 축구국가대표팀 23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최근의 괄목할 만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올 시즌 유망 리케(61) 대표팀 감독의 눈에도 들었다. 슈틸

리케 감독은 황의조를 대기선수 명단에 집어넣었다.

성남 김학범 감독은 "슈틸리케 감독이 이정현(상주상무)에게 쫓겨 있기 때문에 같은 포지션의 황의조가 뽑히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황의조는 아직 배우고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 선수다. 그만큼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대표팀에 들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제든 기회는 올 것"이라고 황의조를 격려했다.

황의조는 이번 대표팀 선발 결과에 실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은 내가 리그에서 보여준 것이 없다. K리그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친다면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러시아월드컵에는 꼭 나가고 싶다"며 태극마크에 대한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황의조